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 기동민 의원>

27년에 이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돼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국정감사, 법안발의 등 한 분야만 놓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임위, 법안, 국감 등 총 12개 분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라 더 소중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탄생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할 일도 많고 한 일도 많았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탄 났던 외교를 복원시키고 사회 전반의 적폐 청산에 매진했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소득주도 성장 등 다양한 패러다임과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할 길은 멀기만 합니다.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일상 속의 적폐’를 청산해 국민들이 크든 작든 일상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대표적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몇몇 언론에서 제게 ‘국민 먹거리·건강 지킴이’란 애칭을 붙여줬습니다. 그만큼 피부에 와닿는 민생 문제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 복지와 건강 문제를 다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마땅한 책무이기도 했습니다.

제2차년도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살충제 계란 문제입니다. 저는 두 번의 국감에서 연이어 계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재작년에는 현장 농가의 잘못된 관행, 사육 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 식탁에 살충제 계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수년째 제대로 된 검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국감에선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살충제 계란 ‘반쪽 꼼수검사’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주요 독성물질인 피프로닐을 검사하면서 원물질과 원물질이 닭의 체내에 흡수돼 바뀌는 변형물질(대사산물)을 합친 국제기준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검사는 원물질 수치만 측정하는 꼼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국감 기간 저희와 학계 등의 잇따른 지적 이후, 식약처는 10월부터 대사산물을 합친 검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변형물질만 검출된 농가가 수두룩하게 지적됐습니다.

그동안 일선 현장을 대상으로 한 관리체계의 부실, 주무부처의 안이함 등으로 인해 먹거리 안전에 큰 빈틈이 있었음을 드러내고, 보완책 마련에 앞장선 것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끝나지 않고 살충제 계란 방지법 2종을 발의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마련해 입법 활동까지 연결시킨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의정활동의 좋은 예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제3차연도가 시작됐지만 제 목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때론 불가피하게 여겨졌던 ‘우리 일상의 적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찾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국가가 할 일이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바랬던 촛불혁명의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새로운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우수의원 선정을 감사드리고, 이 상에 어울리는 의정활동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성북(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더 듣겠습니다, 더 뛰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시(을) 국회의원 김민기입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오랜 기간 국민을 대신해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출석과 재석, 대표법안 발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서 국회의원의 기본 책무를 다시 한 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방대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느라 애 쓰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큰 상을 주신 것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듣고 국민을 위해 더 뛰라는 의미로 알고 의정활동에 더욱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한눈팔지 않고, 더디 가도 바른 길을 가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 수상소감문

김병욱

국회의원 (성남 분당을, 더불어민주당)

교육문화특별관광위원회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 20대 국회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에 2년 연속 수상한 것에 대해
국정감사NGO모니터단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헌 국회 후 최초로 의정활동내역을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한 종합평가하여
270개 NGO연대가 직접 상위 25%를 선정하는 값진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종합평가회 겸 국정감사 우수상은
국정감사를 포함한 의정활동을 엄정 종합평가하여 선정한 것이라 더욱
감회가 남다릅니다.

20대 국회에 들어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맡으면서 지난 2년간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본회의 출석률 100%를
유지하고 있으며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2017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당 국회의원으로
국민에게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원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성원해 주시는 유권자 여러분들과 더불어민주당 당원동지
여러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동안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여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원 선정 소감문

2018.07.11.(수) 10:30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서울 도봉(을) 국회의원 김선동입니다.

국회의원의 기본 덕목이자 가장 중요한 입법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수지표를 개발하여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와 계도에 힘쓰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때보다도 다사다난했던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며 20대 국회의 반환점에 섰습니다. 긍정적 평가보다 부정적 평가가 많은 20대 국회이지만, 대통령 탄핵과 조기대선이라는 헌정 사상 유래없던 일이 일어났던 시기인 만큼 절치부심하여 후반기 국회는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웠던 시기였으나 당의 중책을 맡는 과정에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민의를 수렴하여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같은 내실 있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정책을 발굴하였습니다. 재선의원의 경험과 소신으로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인사참사와 부실한 가상화폐 대응을 지적하는 등 합리적인 비판과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국민여러분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숨가쁜 일정과 급박한 정국 속에서도 국회의원의 기본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와 상임위를 모범적으로 출석하고 현안보고와 국정감사 자리에서 항상 바른 언어를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저를 지지하고 대표로 선출해주신 도봉구민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합리적인 비판과 균형감 있는 견제를 통해 국회와 보수정당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수상을 앞으로도 도봉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사력을 다해달라는 국민 여러분의 명령으로 새기고 후반기 국회에서도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대(三代)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경기도 동두천·연천 출신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엄정하게 평가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살피고, 격려와 채찍을 통해 더욱 성숙한 의회민주주의를 만들어 가고 있는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노력은 대한민국의 정치수준을 꾸준히 높여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임을 믿습니다.

특히, 의정활동 우수의원을 선정해 ‘헌정대상’을 시상하는 오늘 행사는, 성실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는 국회 등원초기의 초심을 상기시켜 주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영광과 자부심을 느끼는 한 편에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그동안 변함없이 저를 응원해주시고, 때로는 따끔한 질책의 말씀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동두천·연천 주민 분들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나누고 싶습니다. 또한 저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며 헌신한 보좌진들과도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20대 국회를 시작하며, 저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제20대 국회 전반기에만 국회 운영위원회, 정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원내부대표, 초선의원모임대표, 통일위원장, 경기도당 수석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민께서 주시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 쉼 없이 달렸습니다.

저의 의정활동 목표는 ‘3대(三代)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조금이라도 더 편안하고, 우리 세대는 활력을 찾으며, 우리 자녀세대가 보다 행복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기반을 닦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앞으로도 저에게 부여된 소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7.11.

국회의원 김성원(경기도 동두천·연천)

제 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승희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진짜 중요한 일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마가렛 대처의 말처럼, 국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저해하는 것들에게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처음 20대 국회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직분을 다했을 뿐인데,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은 것이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임기 중 절반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여를 반추해보니, 국회 입성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안으로 밖으로 지속되는 변란에 스스로도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국회에 입성 1년이 채 되지 않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당내 사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여당의원에서 야당의원이 되었고, 여야반목은 극한의 대치로 이어졌습니다. 초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펼치기에 많은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 후반기부터 올 상반기까지 다사다난했던 의정활동 순간들을 떠올리니, 여러 상념들이 지나갑니다.

제가 의정활동에 임하며 고민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국회의원’이 되어야 했는지,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무가 무엇인가였습니다. 식약처장이었던 저를 이 자리에 앉힌 데는 누구보다 국민 ‘보건’ 향상에 앞장서라는 국민적 명령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질환 등에 걸려 치료를 받았지만, 극단으로 치닫는 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가계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된 분들을 떠올렸습니다. 생각은 바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로 이어졌고, 현재 국민께서는 사후 걱정 않고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복지가 필요한지도 고민했습니다. 국가 복지의 목표는 결국 국민의 행복한 삶으로 귀결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필요한 곳에 질 좋은 복지가 투입되어 ‘내셔널 미니멈’이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의정활동 기간 내내, 소외된 자들을 생각했습니다. 같은 실종자지만, ‘성인’이라는 이유로 체계적인 수사과 적시 대응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실종자와 그의 가족들을 기억했고, ‘고독’하게 홀로 생을 마감하고도 아무도 찾지 않아 수개월이 방치되어 악취가 난 후에야 누군가에게 발견된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게 이런 과분한 상을 주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국회가 명실공히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본연의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담겨 있음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지난 선거 당시, 국민여러분께서 저희당에 보여주신 ‘응답’도 겸허히 들겠습니다. 성찰과 반성 그리고 묵묵한 의정활동만이 ‘정답’이라 생각하고,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국회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낮은 마음으로 묵묵히 제 길을 जाएगा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김종석

지난해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으로 2년 연속 선정된데 이어 ‘제20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마음 깊이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밤낮으로 고생한 의원실 보좌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대 국회 전반기 저의 의정활동은 불량규제의 개혁과 규제개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노력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안’ 그리고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통해 자유와 창의를 넘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기업들이 정부규제의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비록, 일 년 이상 정부 여당의 규제개혁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로 진통을 겪었으나 제가 대표발의 한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우리나라 규제개혁 시스템이 진일보하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입법 발의 건수보다는 민간경제의 자율성과 창의를 극대화 되고, 국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실질적 입법 활동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김해영입니다.

성숙한 시민·정당한 법제·충직한 정부를 목표로 활동하는 사법·입법 감시 법률전문의 공신력있는 NGO인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의정활동 우수상’이라는 의미있는 상을 받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깨끗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보답하겠다는 마음으로 해 온 의정활동이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게되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동시에 앞으로 국회의원으로서 더욱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잘하길 기대하는 마음이 담긴 칭찬이라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더욱 갈고 닦는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남은 2년간의 20대 국회 의정활동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살피는 정치, 깨끗하고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 현 권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입니다.

먼저,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평가해주시고 선정해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헌정대상은 문재인정부 1년을 평가한 것으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조금이나마 기여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와 함께 수상하게 된 선배·동료의원님께도 축하의 인사를 전하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애써주신 평가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 공익형직불제 중심의 농정개혁과 농어업회의소의 설치, GMO 표시제 강화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방역업무만을 전담하는 가축방역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축산국과 분리된 농림축산식품부 내의 방역정책국 신설을 이끌어 냈습니다. 텃밭여 쌀생산조정제, 학교과일간식 실시 등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의정활동 우수의원 선정을 발판 삼아 앞으로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농정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7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현권 올림

민홍철 의원, “성실한 의정활동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

-수상은 더 열심히 일하라는 유권자들의 격려이자 채찍질-

지난 2016년 4월 13일 총선에서 “세상을 향한 ‘희망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약속을 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아 20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임기를 시작한 지 벌써 2년이 흘렀습니다.

국회가 국민들의 염원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또다시 큰 상을 받게 돼 조금은 민망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한편으로, 촛불혁명에 이어 치러진 지난해 5월 대선에서 정권을 획득해 야당에서 여당 소속 의원으로 위치가 바뀌었지만 ‘서민주거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또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김해갑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켰다는 객관적 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는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해시민, 그리고 경남도민, 또 온 국민이 웃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마부작침(磨斧作針)'이라는 말이 있는데 초심을 잃지 않고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표해서 귀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상이 “지금보다 더 열심히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하라”는 유권자와 국민들의 힘찬 격려이자 무서운 채찍질임을 가슴 깊이 새기며 보다 나은 의정활동의 결과로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 주 민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이 받는 큰 상을 부족한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회를 견제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의 자리를 만드신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2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위원 수상에 이어,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 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저는 그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고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펴기 위해 최선을 다해 법률 심사, 현안점검,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개헌과 정치개혁을 위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법안발의도 꾸준히 진행했으며 본회의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NGO모니터단에서 선정한 2년 연속 우수 국정감사 국회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1년, 국회가 국민의 민의를 더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스스로도 더 자주, 더 많이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고, 국민 여러분들이 더 쉽게 국회와 소통할 수 있는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 각종 법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 아직도 신뢰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늘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들이 체감하던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초심을 되새기며 겸허한 마음으로 상을 받겠습니다.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약속드리며, 그동안 노력했던 일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오늘 이 상을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2018 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 국회의원 박찬대 입니다.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이하기에 앞서 지난해에 이어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20대 국회개원 이후 오늘 날까지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 노력을 알아봐주신 우리 국민들께서 주신 상이라 생각하고 진중하고 기꺼운 마음으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 환경도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기로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와 혁신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요구는 의회감시자 역할을 성실히 해주고 계신 NGO 여러분들의 꾸준한 참여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20대 국회 2차년도 국회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은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아픈 곳을 잘 살폈는지, 올바르게 성실한 의정활동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소비자연맹의 평가를 국민이 주시는 ‘격려와 신뢰’ 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본연의 업무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어느덧 국회도 전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2년 간 정무위원회에서 국민경제를 되살리고, 국가 경제의 새로운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던 날들이 생각이 납니다. 가계부채 문제와 재벌 개혁, 금융개혁의 결실로 이어지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20대 국회 후반기에 도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뜻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신뢰받는 국회, 희망찬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NGO 여러분의 날카롭고 냉철한 감시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 국회의원 서형수입니다.

오랜 전통과 더불어 엄정하고 객관적 평가를 자랑하는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소비자연맹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소임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돼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충실하라는 국민 여러분의 격려라고 생각하고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저는 20대 국회 제2차년도 회기에서 환경노동위원회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했고, 당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 일했습니다. 일자리창출과 노동권 신장,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할 입법개혁 과제 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산입범위 제도개선 관련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데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에서는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후 상임위, 국정감사 등에서 낙동강의 수질오염 문제를 분석하고 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국회 물관리일원화 협의체의 여당 간사로 활동하며 협의체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최선을 다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는 주어진 임기 동안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와 소득분배 개선, 경제의 혁신을 주된 목표로 삼고, 일자리와 복지를 튼튼히 하면서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메꿔가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끝으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면밀히 살핌으로써 국회의 역량강화에 기여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에게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는 양산시민과 국민 여러분들께 수상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07.

국회의원 서 형 수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원주 출신 국회의원 송기현입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국가와 강원도, 원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가 ‘헌정대상’이라는 큰 상으로 보답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장밋빛 원전의 허상과 원전 위험요소 확인, 전통시장 소상공인 보호, 정부예산 낭비와 비리 근절, 공공기관 근로 여건 확인, 청년 창업정책 확보 등을 통해 나라살림을 꼼꼼히 따지고 정부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여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본회의 출석률 100%, 법안 대표발의 32건, 통과법안 6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헌정대상’이라는 결실로 다가오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이 저의 노력만으로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헌정대상’ 수상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라는 채찍질로 받아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헌정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의 의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삼겠습니다. 이런 저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법률소비자연맹에서도 지금과 같이 왕성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 수상소감문_송희경 의원>

“튼튼한 경제, 민생정치 실현. IT로 더욱 빛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이라는 귀한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생을 위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이번 수상을, 더욱 분발하라는 국민여러분의 격려로 생각하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핵심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활동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향후 우리 미래세대 먹거리 정책의 산실입니다. 또한 제가 겸임한 여성가족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비롯, 여성의 ‘독박육아’, ‘경력단절’등 산적한 국가적 현안을 해결해야 하는 곳입니다. 때문에 두 개의 상임위 위원과 4차산업혁명특위의 간사라는 중책을 부여받으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 동안 현장 곳곳을 누비며 보고 들은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감사장·본회의장에서 전하고, 입법으로 대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혁신 벤처 생태계 내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드론·자율주행차 등 융합혁신을 가로막는 규제해소를 위한 위치정보법, 양육비 이행 절차 간소화를 위한 양육비이행확보지원법 개정안 등 많은 대표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소기의 성과도 달성하였습니다.

ICT 업계에 30년간 몸담은 두 아이의 엄마로서 '4차 산업혁명성공'과 '저출산 문제 해결'를 위해 매순간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4년 임기의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아직도 보람보다는 국민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앞섭니다. 녹록치 않은 경제상황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창 꿈을 위해 질주해야 할 청년들은 현실의 벽 앞에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보다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도록 현장과 소통하고 규제를 혁파해 나가며 혼신을 다해 의정활동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청년비례의원 신보라입니다.

20대 국회가 반환점을 돌고 하반기를 시작되는 시점에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큰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 깊습니다.

상반기동안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운영위원회와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관련한 입법과 정책개발을 위해 활동했고, 청년이자 예비맘으로서 청년세대들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여러 고충을 해결하려는 노력해 왔던 점을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20대 국회 개원 첫날 '2030 세대'의 지원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한 청년기본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년의 나이를 몇 세까지로 규정할지, 소관부처를 어디로 할지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되어 왔지만, 최근 여야 의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단일 안의 청년기본법을 마련·발의하게 되었고, 그런 활동에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소관 상임위를 거쳐 연내 본회의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평가하는 주요 지표들은 국회의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들로 앞으로 평가와 관계없이 기본에 충실한 국회의원이 되도록 분발토록 하겠습니다. 상을 받는 건 언제나 기쁜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어깨를 무겁게 합니다. 더욱 경주하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여기고 하반기 의정활동도 활발히 펼치겠습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신용현입니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헌정대상” 수상의원으로서 선정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가 개원한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이번 수상이 국회의원이 되면서 국민을 위하는 정치,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2년 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노력 ▲연구목적기관지정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킴으로써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등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방송 공정성 ▲포털 뉴스배열, 공감순 댓글 조작 문제 등 포털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원자력 안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최근 벌어진 ‘라돈침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관련 토론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는 ▲일명 ‘유리천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을 발의 및 통과시켰고 ▲미투운동의 확산으로 벌어진 펜스룰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해 초부터 시작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적극 지지하며, 위드유 운동을 해 왔고 5월에는 #스쿨미투에 대한 응답,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얼마 전 활동이 종료된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로서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불필요한 규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한 노력도 해왔습니다.

지난 2년, 바쁘게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만 아직 국민 삶 곳곳에는 많은 문제들이 남아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께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정대상 수상 소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20대 국회의 반환점을 지나며 이렇게 뜻 깊고 영예로운 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평가기준에 따라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법률연맹의 김대인 총재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지역주민과 전북도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이번 상의 의미는 항상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 여기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전북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등 4개 지역은 전북 면적의 34%를 차지하고 산간고원지역입니다. 때문에 항상 무한불성(無汗不成)의 신념과 각오로 최선을 다해도 아쉬움과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무엇보다 초심을 잃지 않고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역주민의 성원이 있었던 덕분입니다. 취약한 교통인프라와 상대적으로 낮은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활력과 희망의 씨앗을 심어야 한다는 사명감도 저를 더욱 분주하게 이끄는 촉매입니다.

지난 2년간 노도와 같은 정치적 격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서민주거안정과 주거복지증진, 대중교통의 공공성확대,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활동에 힘썼습니다. 이것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보람된 행보였다고 자부합니다. 다가올 시간에도 더욱 성실히 국민을 위한 입법과 정책개발에 전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의 근간이 되는 농산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현안 문제해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소통하며 행동으로 실천하는 바른 정치를 통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든든한 대변자로서의 앞장서고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희망을 키우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수상의 영광을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은혜입니다.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하는 것으로 알려진 헌정대상을 저에게 주시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열심히 일 할 기회를 주신 지역구민들께 이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의 2년차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직을 맡으며 촛불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문재인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문제로 신뢰를 잃어버린 문화행정을 정상화 하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본분이라 할 수 있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국정감사에도 정성을 쏟았습니다. 두 번의 대정부질문, 그리고 성실한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과 지역구민이 저에게 부여한 책무를 다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이제 20대국회도 후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성공이라는 점을 명심하며 남은 기간 동안 민생을 살피고 약자의 목소리를 크게 듣는 정치를 이어가겠습니다.

상을 주신 법률소비자연맹,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8.7.11.

국회의원 유은혜

「이명수 의원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충남 아산 출신 국회의원 이명수입니다.

어느덧 2018년의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에 이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 속에서, 저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제2차년도 헌정대상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되어 너무도 송구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회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유권자와 시민단체들의 격려와 신뢰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의정활동을 종합평가하여 수여하는 상으로써, 지난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매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법안과 예산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이 국회를 보는 시각이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국가적 현안들과 갈등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은 앞으로 아산을 대표하는 성실하고 일 잘하는 의원이 되고,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겸손함을 잃지 않도록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 선정 기간 동안 고생하신 모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을 지원하고, 대책마련과 함께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입법활동을 통해 국회의원으로서 본분을 잊지 않고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의원 이명수

2018.7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감사합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명 국회의원입니다.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우수 의원을 선정하는 매우 뜻 깊은 상인 ‘제20대 국회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국민의 편에서, 국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라 생각하겠습니다.

20대 국회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국민 앞에서 다짐했던 국회의원 선서를 가슴 깊이 되새기며, 초심을 잃지 않고 남은 의정활동도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새롭게 혁신하는 자유한국당과 함께 ‘튼튼한 국방, 따뜻한 복지’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군, 장애인 권리 폭넓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시상식을 주관하고, 지난 27년간 입법·사법감시 법률전문 NGO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온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 강한, 더 나은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만 보겠습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부산진구을 출신 이헌승 국회의원입니다.

먼저, 사법·입법감시 27년 전통의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 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함께 수상하게 된 선배·동료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0대 국회 후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말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들고, 진정 국민을 섬기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의정활동에서 아쉬웠던 부분들은 더욱 보완하고, 국민들 실생활에 불편부당함이 없도록 국민들의 시각에서 정부 정책들을 바라보고 정책대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힘쓰겠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도 대한민국 국회가 민의의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변화와 쇄신을 위한 노력에 촉매제가 되어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법률소비자연맹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인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 07. 11.

국회의원 이헌승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소감

안녕하십니까? 서울 금천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훈입니다.

우선 저에게 이번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간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국정감사 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받아와 황공할 따름이었는데, 의정활동우수자에게 수여하는 헌정대상까지 받게 되어 무척 기쁘면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의 영광스런 시상식을 준비해 주신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을 만들어준 민심에 대해 저는 민심이 얼마나 무섭고 위대한 것인지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촛불정신을 계승하여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민심의 강한 명령이 있었지만, 여전히 국회는 그 명령에 제대로 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국회는 정말 민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합니다. 국회가 그동안 계속되는 반목과 정쟁 시비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점이 많았지만, 저는 마냥 현 국회 구조의 한계를 탓할 때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폐를 끊어내 개혁된 체제를 만들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국회의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타협하는 자세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저는 늘 이와 같은 다짐을 하며 국회의원으로서는 본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부 정책이 보다 장기적이고 큰 그림을 그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인 감시와 요구를 해왔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선 야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결국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는 등 입법활동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오늘의 이 영광은 미약한 저의 노력이라도 민심이 인정해주었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에게 기대하고 있는 민심의 뜻에 부합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도 반환점을 돌아 하반기 운영에 돌입했습니다. 남은 2년, 국민의 대표로서 저는 국회의원이란 자리의 막중함을 늘 새기면서 보다 합리적인 정책 설정과 올바른 입법활동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저를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점에 무척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연맹의 무한한 발전과 번영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상소감문

국회의원 임이자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평가위원들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정밀하고 공정하게 평가해 국회가 국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법률소비자연맹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2017.5.29.~2018.5.29.) 헌정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의 기회를 얻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상은 국민을 위해 더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으로 알고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서울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남(을) 국회의원 전현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명예로운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겨주신 국민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염원이 담긴 작년 촛불대선을 지나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민선이후 최초로 민주당 구청장이 당선되는 등 국민께서는 민주주의의 꽃인 투표를 통해 정치혁명의 새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변화를 향한 중심에 있는 제20대 국회는 이와 같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하반기 시작을 앞두고 더욱 비장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흘러온 전반기 국회와 작년 한해를 겸손하게 되돌아봅니다.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공기업의 방만한 혈세낭비 경영을 지적하며, 특히 부실한 ‘한반도통합철도망 계획’을 지적하고 후속 조치에 매진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난 4월 27일 ‘판문점 선언’ 이후 한반도는 평화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얼마 전 언론을 통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첫 걸음으로 한반도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한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평화의 훈풍 속에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의정활동에 보람을 느끼며, 과거의 행적을 통한 현재의 소중한 변화에 늘 감사와 겸손의 자세로 국민의 일꾼이 되리라 재차 다짐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이 상은 20대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하반기에도 초심을 잃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국민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도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반기에도 최선을 다 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 번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해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대한민국 의회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과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노고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헌정대상 수상소감문

자유한국당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의원 전희경입니다.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 운동 27년 전통의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의정 발전을 위해 국회 모니터링에 애써 오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문제점과 일부 교육감들의 헌법적 가치에 어긋나는 반시장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교육 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지지율은 높지만 교육정책에서는 평균에도 훨씬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은 국민들의 민의와 바로 맞닿아 있고,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가장 낮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과 반대의 길에 이 정부가 고집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저의 교문위 활동이 국민과 정부의 소통 가교가 되고, 정부의 교육 정책이 교육 수요자들이 원하는 방향을 향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습니다.

또한, 올해 주요 입법활동으로 매크로 프로그램(키 입력 등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기 공연이나 스포츠경기 티켓을 사재기한 뒤 암표로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연법 일부 개정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습니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안전대진단은 현행법상 시행근거가 없어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법에는 국가안전대진단 사업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이 사업을 통한 안전점검 결과는 국민들에게 지체없이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헌정대상수상은 저의 지난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임하는 제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을 수 있는 좋은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바른 모습으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께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수상자 선정을 위해 애써주신 법률소비자 연맹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법률소비자 연맹의 활동에 항상 좋은 성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정인화입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정대상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 여러분이 국회 의정활동 전반을 종합 평가·계량화해 발표한 것이기에 더욱 뜻 깊은 상이 아닐까 합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지금까지 끈게 달려온 것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힘차게 달리라는 채찍질의 의미로 알고 겸손한 자세 잃지 않겠습니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을 대표일꾼으로 세워주신 국민에 대한 책무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역할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모니터단에게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국회 전반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농어업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간사와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면서 많은 민생현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이러한 점을 높이 평가해주시어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과분한 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헌정대상 수상에 만족하여 안주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산적해있는 각종 현안이 많습니다. 정부와 국회는 협치와 상생을 통한 선진화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번 헌정대상수상 경험을 발판삼아 국민의 신뢰를 얻고, 진정 국민의 삶을 위하는 민생국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여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항상 지켜봐주시고 질책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시상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소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춘숙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던 6·13 지방선거를 잘 마무리하고, 국회의원 임기 2년차를 넘기며 다시 한 번 심기일전을 준비하고 있던 시기에 헌정대상 수상의 소식은 그 어느 때보다 뜻 깊게 다가옵니다.

작년 초선의원으로 국회에 발을 디딘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영광스럽게도 헌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되어 매우 기뻐했는데, 오늘 또 다시 2년 연속 헌정대상 의원으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제게 국회의원으로서는 바라는 소임은 무엇이며, 길지 않은 의정활동에서 제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의 끝에 제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이며, 국민이 제게 주신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법부의 독립된 권한을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헌신적으로 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고 국민을 대표하는 하나의 독립적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에게 주신 오늘 이 상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 땅에 소외된 국민이 없는지 살피고, 잘못된 정책들은 없는지 철저히 감시하며,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 내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바쁜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 수고했던 보좌진 여러분과 함께 2년 연속 헌정대상 수상이라는 영광을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엄정하게 평가하느라 수고하신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 국회의원 조승래입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서 선정한 20대 국회 제 2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참으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초선 의원이 되어 국회에 첫 출근한 것이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임기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의정활동에 성실함과 열정을 다해 왔는데,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뿌듯합니다.

그동안 본회의와 상임위의 꾸준한 출석은 물론 논의되는 안건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으며, 입법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법안 발의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정책·민생국감을 위해 사전에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비판을 넘어 대안까지 제시하는 여당 의원이 되겠다는 책임감으로 성실하게 국정감사를 준비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에서 주신 국정감사 우수의원 상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인 주민분들께서 국회로 보내주신 만큼 그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묵묵히 제게 주어진 역할을 해 온 것뿐인데, 이런 의미 있는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특히 이번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에서 객관적이고 우수한 의정평가방법을 도입해 선정해 주신 것이어서 더욱 뜻 깊은 상입니다. 언제나 시민들을 대변하며 국회를 견제하고 국회 활동을 평가해 주시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 더욱 성실하게 잘 의정활동을 해 나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알고 남은 임기 동안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 더욱 노력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의원입니다.

올해 국회의원 헌정대상에 선정되어 무척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원 2년차를 맞아 초년 때보다 진일보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2017년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새로운 정부가 꾸려진 이후의 시기였기에 과거 보수정권에서 쌓여온 행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부가 민생중심의 국정운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정무위원회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리고 특별위원회인 청년특위에서도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행정부 견제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재벌들의 지배구조 및 반시장적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관련 입법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과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시장이 공정 성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며, 공익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특위에서는 청년기본법의 여야합의안을 만들어서 소관 상임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되면 현장에서 멀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초심을 잃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경제와 건전한 금융시장을 만들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제가 잘해서 이 상을 받았다고보다는 앞으로 국민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더욱 몸을 낮추어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의 기쁨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땀값하는 국회의원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 수상” 소감

국회의원 최연혜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최연혜입니다.

먼저 헌법과 법률을 통한 자유·정의·평화·법치민주사회 구현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법률소비자연맹’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2017년도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린 것에 이어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유례없는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등 소상공인과 기업 및 생계형 노동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급진적이고 설익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국익 극대화과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최우선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 정부는 곳곳에서 초법적·위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국가 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역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지적하고 국민들께서 궁금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팩트’를 알리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민생경제가 매우 어려운 시점에서 이번 수상을 국민의 일꾼으로서 더욱 노력하라는 채찍과 격려의 뜻으로 여기고 앞으로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함께 수상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하며, 아낌없는 성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률소비자연맹 ‘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시 달성군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20대 국회가 어느덧 절반을 넘어선 시점에 법률소비자연맹의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돼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2016년 국회에 들어온 이후 늘 국민의 뜻을 대변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활동에 임할 때 항상 민생과 국익이라는 관점을 견지해 왔습니다.

당리당락에 따른 정치적 활동의 차원을 넘어서 국민과 국가의 편에서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고,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특히 입법부 권한인 법안 발의와 심사에 있어서 정책의 효과와 비용 및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여하는 헌정대상은 제게 무척 과분한 상입니다. 오로지 대한민국과 국민만 바라보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던 초심을 잊지 말라는 당부와 격려의 말씀으로 알고, 더 겸손하고 더 낮은 자세로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국회가 수행해야 할 가장 큰 책무 가운데 하나인 행정부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균형 잡힌 견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률소비자연맹에서 보다 많은 역할과 노력을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추 경 호

“제20대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 수상” 소감문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입니다.

제20대국회가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후반기 활동을 시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 법률소비자연맹이 수여하는 ‘제20대 국회 2차년도 헌정대상(의정활동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법률소비자연맹의 김대인 총재님을 비롯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주신 모니터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국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가 나날이 높아지고 평가의 잣대도 더욱 엄격해져가고 있습니다. 법률소비자연맹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은 높아져가는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하도록 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매우 뜻깊고 중요한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 것은 정부가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잘 살펴보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주시는 상은 국민을 대신하여 정부를 더욱 건강하게 감시하고 발전적인 비판과 대안으로 견제하라는 채찍질로 알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며 시흥시민 여러분의 염원인 지역 현안을 해결함은 물론 우리 국민이 원하는 올바른 정치문화 창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다짐을 다시 한 번 더욱 깊이 새기며, 변함없이 후반기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7. 11.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함진규